

한파 예고... 농작물 보온 관리 철저

농진청, 시설하우스 재배 작물 낮시간대 햇빛 받도록 보온용 커튼 걷어아

'단열시설 점검·온풍기 등 가동 적정온도 유지' 축사 관리방법도 제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이번 주말 강원, 경기 등 일부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에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과 가축의 보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31일 지역별 최저 기온이 영하 15~영하 2도, 1월 1일(토)은 영하 16~영하 2도, 2일(일)은 영하 4~2도로 전망(2021. 12. 30. 기준)했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낮시간대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보

온용 커튼이나 보온덮개는 겹는다 저온장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하우스를 환기시킨다.

해가 지기 전에 보온용 자재를 다시 덮어주고, 작물별 생육 최저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온도가 낮아 작물 생육이 좋지 않을 경우,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 등을 잎에 뿌려주고, 언 피해가 경미해 회복이 가능한 포장은 햇빛을 2~3일간 가려 주었다가 서서히 받도록 해준다.

적정온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가축의 체열이 크게 손실되고, 사료효율이 감소하므로 축사의 단열시설을 점검하고, 온풍기 등을 가동해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축사 내 전열기구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 누전이나 합선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작동상태를 살핀다.

농촌진흥청은 한파, 대설 등 기상예보에 맞춰 겨울철 기상재해로 인한 피

해 우려 지역 농업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SMS) 알림으로 농작물 안전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과 빠른 대응을 위해 도농농업기술원과 협업하여 모바일(정보수집)하고 있다.

농작물·시설물 피해예방과 긴급복구를 위해 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기술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한파로 인한 농작물의 언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 관리와 가축의 영양공급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설 명절은 가족과 설레여라~

전북생생장터, 내달 3일부터 할인기획전 15~20% 할인 · 제휴카드 10% 추가할인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freshjb.com)에서 2022 설명절 설렌다 기획전을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또한 1월 3일부터 21일까지 구매 후기 작성 참여 회원 10명을 추첨해 완주 고산농협 한우 차돌박이 400g을 증정하는 전북생생장터 Fresh! 구매 후기 이벤트와 '소원을 말해봐'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백승하 도농산물유통팀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번 명절에도 가족, 지인과의 만남은 자제되고 있지만, 전북도 농특산물 구매로 설 명절은 가족이 설렷을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생생장터(www.freshjb.com)와 고객센터(☎1668-1278)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해가람' 수산물 온라인 판매 오늘부터 판매 포털 운영

전북도 수산물 브랜드(상표)인 '해가람'을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인 '해가람' 온라인 판매 포털을 3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가람'은 전북도의 바다(해)와 강(가람)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의미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수산물 공동브랜드다.

도내 모든 수협이 참여하는 '전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협의회'에서 해가람 브랜드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도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가람 브랜드 정착과 활성화에 위해 올해 해가람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개발했다.

수산물 친환경 인증 및 HACCP 시설 인증 등 국가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15개 업체가 입점해 수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보이스피싱 3000만원 피해 예방

전북은행 조영경 대리 익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 고봉로 지점에 근무 중인 조영경 대리가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익산경찰서로부터 30일 감사장을 받았다.

조영경 대리는 보이스피싱으로 즉각 판단하고 고객에게 안내 후 신속하게 경찰과 협조하여 신고했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 3천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

은행 관계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사기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고창군산림조합, 하반기

산림조합금융 종합업적 '은상'

고창군산림조합 (조합장 김영건)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추진한 2021년 산림조합금융 종합 업적평가부문 은상 수상, 산림청 주관 2021년 임업정책자금 지원 캠페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42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성장성을 비롯해 수익성, 건전성, 생산성, 캠페인 등 금융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여 은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2018년도부터 4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 추진한 임업인 정책자금 지원업무에서도 2020년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또다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김영건 산림조합장은 "조합을 이용해주시는 많은 고객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수상하게 되어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준조합원, 임업인, 모든 고객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산림조합이 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내 부산물로 발효 비료 제조 기술 개발

유기질비료 대체제로... 농진청, 지난달까지 현장 실증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해 발효 비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실증했다.

발효 비료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에서 화학비료 대신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대체제로 개발했다.

연구진은 미강 20kg, 찹쌀 30kg 건조 주정박 30kg 어분 20kg에 물 30l를 넣고 골고루 섞은 후 비닐봉지에 담고 밀봉해 상온(20~30도)에서 약 21일 동안 발효시켜 비료를 만들었다.

발효 비료의 성분 함량은 질소 4.6%, 인산 1.6%, 칼리 1.7%로 나타나 유기질비료와 차이가 없었다.

작물 아주살기(정식) 2주 전 토양검정 시비량 질소 기준 100%에 해당하는 발효 비료를 밑거름으로 토양에 뿌려 경운했다.

발효 비료와 유기질비료를 뿌린 토양에서의 생장량을 비교한 결과, 감자는 10아르(a)당 3.372kg(발효 비료)와 3.483kg(유기질비료)이 생산돼 큰 차이가 없었다.

무도 발효 비료(7,308kg)와 유기질비료(6,333kg)를 주었을 때 생산량이 비슷했다. 배추 역시 발효 비료(1만 868kg), 유기질비료(1만 633kg)를 처리했을 때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실증을 바탕으로

발효 비료 제조 기술을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선정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발효 비료로 유기농 무 배추를 재배하는 공성길 농업인(전북 정읍)은 "유기질비료 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발효 비료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은 자원 순환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실천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박상구 과장은 "아직은 농가에서 발효 비료를 직접 제조해 활용하는 단계이지만, 생산 시스템 구축과 제품 등록을 추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산화텅스텐 생산공장, 새만금에 유치

새만금청, 중국 최고 신용등급의 첨단기술 국유기업과 협약

새만금개발청(청장 안충모)이 중국 사만팅스텐사와 초경합금 소재인 산화텅스텐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산화텅스텐'은 한국광물자원공사(군산소재 광산물 비축시설)가 비축하는 전략자원 10광종(텅스텐, 희토류, Cr, Mo, Ti, Nb, Se, Ga, 인티프코, 지르코늄) 중 하나이다.

'사만팅스텐'사는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최고 신용등급(AAA)의 첨단기술 국유기업으로, 지난 6월 입주사를 통과하고, 한국법인 설립을 통해 새만금에 중국기업으로는 첫 단독투자를 할 계획이다.

사만팅스텐사는 새만금 한중산단에 1,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3년부터 연간 1,500톤 규모의 산화텅스텐과 텅스텐산비료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철강공구 제조의 전라주 산재이면서 신산업 분야의 필수 원료인 텅스텐이 그간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투자를 그 어느 때 보다 값진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사만팅스텐사의 한국 투자는 한국 내 고객사의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 알려졌다.

특히, 새만금을 선택한 이유는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등을 통해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기반시설, 한중산단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출입 물류증대로 군산항·새만금항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산화텅스텐을 새만금에서 생산함으로써 전략자원 확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사만팅스텐사의 투자가 미중물이 돼 새만금 한중산단에 유망한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투자 기업이 새만금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일용·단시간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월소득 220만원 이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6월 관련법정이 개정된 바 있다.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의 사업장 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3,000여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6월 관련법정이 개정된 바 있다.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의 사업장 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3,000여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AI 기반 출하서비스 시범운영 돌입

aT공사 '출하반장' 개발

농산물 출하를 위한 정보부터 운송 예약과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 출하서비스 출하반장이 지난 28일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유통 비효율 개선을 위해 연간 수천만건에 이르는 공사의 도매가격 정보와 민간 스타트업(썬데이)의 실시간 물류 데이터를 융합해 '출하반장'을 개발했다.

출하반장은 AI·빅데이터 기반 농산물 출하 One-stop 웹서비스로, 전국 82개 공영도매시장 82개 경매장의 유통비용을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해 출하처별 예상 수취가격을 비교·제출한다.

또한 AI매치시스템을 활용해 양복차량 사전 확보 및 최저 운송비용 차량 연결로 시중 운임보다 평균 20~30% 저렴한 화물여객·결제가 한 번에 가능하다.

공사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서 농산물 출하 시 생산자와 유통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회원가입 후 3번의 조회만으로 견적 비교, 운송 예약·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한편, 공사는 출하반장으로 농산물유



통의 디지털 전환 추진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2021 전자문서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기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출하반장 개발과정에 참여한 농업경제연구원 석도상 거창군연합사업단장은 "흔히 농사보다 더 힘든 것이 판매라고 하는데, 출하반장이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해주니 기쁘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이원기 디지털혁신단장은 "배타 서비스가 진행되는 한 달여 간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하고 기능을 보완해 2월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3월에는 농넷(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앱과 통합해 생산·반입량 분석 및 도매가격 예측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하반장은 홈페이지(goat.or.kr)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홈 화면 추가로 압축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